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신중*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대학	기간	2016. 7. 10(일) ~ 7. 30(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교는 시내와 밀접해있다. 집에서도 걸어서 20분정도였고 버스도 잘 다녔기 때문에 위치에 관해 불편하지는 않았다. 규모는 일단 부지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컸지만 건물은 본건물, 기숙사, 체육관 으로 딱 있을것만 있었다. 그러나, 시설은 굉장히 좋았다. 안에는 학생들과 소통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고, 카페와 바도 있었으며, 체육관의 시설도 무척 좋았다. 분위기는 굉장히 평온하였다.</p>
수업	<p>수업은 컴퓨터로 진행하는 쓰기수업과 발음 및 영어표현을 배우는 수업 두가지가 있었다. 컴퓨터로 진행하는 수업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경험들이나 이야기를 자신만의 블로그에 올리고 검사를 받는 방식이었다. 발음 및 영어표현 수업은 수업마다 간단한 PPT를 준비하여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방식이었다.</p> <p>학생이 10명이었기 때문에 분반은 하지 않았다.</p> <p>강사 분들은 정말 재밌고 다정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었다.</p> <p>과제는 많지 않았다. 간단한 PPT만들기 또는 블로그에 글쓰기 정도였다.</p> <p>수업준비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었다. 강사 분들이 프린트를 나누어 주셨다.</p>
Activity	<p>활동은 밖에서 많이 하였다. 때마침 마을에 축제가 열려 축제 행사 부스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 이 지역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활동, 유명한 관광지 방문 등 으로 굉장히 재밌고 직접 캐나다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 있고 또한 대화도 많이 나누어 볼 수 있는 활동이 많았다.</p> <p>호수에도 놀러갔는데 여기서 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수영복을 가져와야 한다. 다른 활동들은 대부분 준비물을 제공해주었다.</p> <p>자신이 직접 음식이나 기념품을 사는 경우 이외에는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았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태양이 따갑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선크림은 필수이다. 밤에는 썰렁해지기 때문에 얇은 긴팔 몇벌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p> <p>하지만, 낮의 날씨는 습하진 않지만 덥기 때문에 반팔을 위주로 챙겨야 한다.</p>
안전	<p>현지에서는 딱히 위험하다고 할게 없다. 그저 밤늦게만 돌아다니지 말고, 또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경우에는 무시해야한다. 이들은 돈을 구걸하는 경우가 많다.</p>
숙소	<p>시설은 갖추어 준 것은 다 갖추었다. 뒷마당에는 트램펄린과 수영장이 있고 지하에는 아지트처럼 비디오 게임과 TV, 쇼파등이 마련되어있었다.</p> <p>분위기는 떠들썩 하였다. 홈스테이 가족들과 이웃들이 자주 모여서 뒷마당에서 수영을 즐기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가족이 워낙 바빠서 조용할때는 정말 조용하다.</p> <p>규칙은 따로 없었다. 거의 자유로운 분위기 였고 화장실 사용할 때 바닥에 물기를 남기지 않는 것만 주의하면 되었다.</p> <p>나름 만족스러운 집이었다. 주말에는 캠핑을 떠나서 마시멜로도 구워먹는 색다른 경험도 해보고 집에 있는 아이랑 비디오 게임도 즐겼다.</p> <p>다만, 저녁은 제 시간에 있다면 챙겨주지만, 아침과 점심은 내가 챙겨먹어야 했다.</p>
식사	<p>학교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v) 기타()</p> <p>아침은 주로 빵과 시리얼을 먹었고 점심은 학교식당에 와서 카페에서 빵과 스낵, 마실 것을 사먹었다. 저녁은 밖에서 같이 사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집밥은 많이 먹지 않았다. 집밥은 주로 스테이크나 생선, 쌀밥과 샐러드를 먹었다.</p> <p>식사는 입맛에 정말 잘 맞았다. 처음에는 짠맛이 심하긴 했지만 며칠 지나니 바로 적응하였다. 빵도 매일 먹다보니 잘 적응하였다.</p>
교통	<p>집에서 도보로 20분거리라서 매일 걸어다녔다.</p> <p> 시내에는 30분마다 버스가 오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였고 11시 15분 까지 버스가 있고, 놓쳐도 택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824,9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150,000	점심, 저녁식사
기념품	150,000	옷, 과자, 마실것
합계	2,124,900	2,124,9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태양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선크림은 필수로 챙겨야 한다.
와이파이가 웬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로밍이나 유심칩은 따로 없어도 될 것 같다.
입맛이 안맛을 수도 있으므로 고추장 튜브를 챙기면 도움이 될 것 같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수세인트마리에 처음 도착 했을 때는 시설이 너무 없어서 작은 시골이며, 지루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 만나고, 음식을 맛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마을이 좋아졌다. 역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지만 가장 재밌었던 것은 사람들과 만나는 활동이었다. 특히 마을 축제 봉사와,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활동은 내가 직접 영어표현을 써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처음으로 나가본 해외였지만 굉장히 만족스럽다. 동 서양의 문화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던 교환학생을 꼭 하기로 결정하였다. 교환학생 뿐만이 아니라 워킹홀리데이도 떠날 생각이다. 정말 진심으로, 해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뭐든지 할 생각이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사진설명 : Lake Superior 에 놀러간 날이다.



사진설명 : WhiteFish Island 에 놀러간 날



사진설명: 미국 미시간 주 폭포에 놀러가서 찍었다.



사진설명: 한국 문화중 첫가락에 대하여 설명하는 중



사진설명: 요양원 봉사



사진설명: 마을 축제 행사 도우미!